

총선 참패한 국힘 ‘친윤·비윤’ 역학 관계 바뀔까

‘비윤계’ 나경원·안철수·윤상현 등 정권 심판 바람 뚫고 승리 특검법·당권 경쟁, 세력 변화 가능자...고강도 인적쇄신 공감대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그동안 친윤(친윤석열) 계에 쏠렸던 당내 역학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선에서 매서운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당내 주류였던 친윤계 구심력은 약화할 수 있는 반면,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비윤(비윤석열)계의 활동 공간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윤계로 분류되는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은 심판론의 바람을 이겨내고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선됐다.

이들 3명의 중진 모두 21대 국회에서 친윤계의 견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비윤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불출마했다. 당시 친윤계 초선들은 연판장을 들리며 그의 불출마를 압박하기도 했다.

안 의원 역시 당내 비주류 중진으로서 3·8 전당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의 비토 공세에 시달리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윤 의원은 총선 이전 일찌감치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윤산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 전환과 수직적 당정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했다가 친윤계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총선 결과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온 김재섭(서울 도봉갑),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등 30대 당선인들도 비윤계의 선봉에 설 수 있다. 두 당선인 모두 그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해왔던 인사들이다.

친윤계의 경우 주류 현역은 상당수 당선됐고, 대통령실 참모 인사들도 절반가량 생존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 모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박수영 의원 등도 재선에 성공했다.

여기에 김은혜 전 홍보수석, 강승규 전 시민사

회수석, 주진우 전 법무비서관, 박성준 전 국정기획비서관 등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참모 출신들도 가세했다.

다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일부 친윤계 후보들도 ‘이중섭-황상무’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용산의 결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일사불란한 친윤 단일 대오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친윤계와 비윤계의 역학 구도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지점으로는 특검법과 차기 당권 경쟁이 꼽힌다.

우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두고 양측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비윤계 당선인들은 총선 이후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김재섭·김용태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두 특검법 모두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기 때문에 친윤계가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도 양측의 세력 변화를 판단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윤계 내에선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고 총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선 친윤이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비윤계 청년 정치인인 김재섭 당선인을 당 대표로 세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향후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고강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비윤계가 정치적 불륜을 키울 가능성이 큰 가운데 친윤계가 당권 경쟁 국면에서 과거처럼 응집력을 발휘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연합뉴스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해체에 따른 향후 진로를 놓고 격랑이 예상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11일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생환한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든 직책과 비난까지도 다 제 몫”이라며 당직에서 물러났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모습. /연합뉴스

국힘, 차기 지도부 구성 논의

내일 당선인 총회...선출 방식·시점 놓고 의견분분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은 총회 일정을 통보했다.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동쪽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단체로 참배하고, 곧장 국회로 이동해 오전 10시부터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할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 당내에서는 지도부 교체 방식과 시점을 놓고 다양한 의견

이 분출되고 있다. 크게는 일단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과, 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22대 국회 출범 직후 전당대회를 열어 2년 임기의 정식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권한대행이 관리형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을 겸임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 권한대행은 15일에는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열어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동훈 “내가 부족” 당직자들에 작별 인사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당직자들에게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니다”라며 “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급히 떠나고 동료 당직자와 보좌진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며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 잘 지내세요”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수도권 낙선 후보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 낙선한 한 후보는 “한 전 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함께 힘을 내자’,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 방법을 찾자’라는 취지로 위로해줬다”며 “한 전 위원장 역시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격려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결과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1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호남 1박2일 방문

총선서 전국 최고 득표...22일 전주·23일 광주서 감사 인사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했다. 이번 총선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비례대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호남 민심의 지지에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선자 12명은 오는 22일과 23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와 광주를 방문한다. 총선 이후 첫 지역 방문 일정이다.

당선자들은 당원과 지지자를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등 총선 공약 실천에 대

해 다짐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전주와 광주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지지세가 컸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7개 시도 비례대표 투표 결과 조국혁신당은 부산과 세종, 광주, 전남,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중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각각 47.72%, 43.97%, 45.53%의 표를 얻었다. 같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연합은 36.26%, 39.88%, 37.63%를 얻었다.

특히 광주에서는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연합보다 10%p 넘게 앞섰다.

조국혁신당이라는 ‘대체제’ 등장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광주-전남에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3일 창당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도 호남을 찾았었다.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을 기치로 표식을 공략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공식 회동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어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윤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나 기자 khn@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목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2024 고소득 추천 목록

포포나무	계리스 빅걸 리만스 달라이트 마리아스 조이	선물리워×센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프로리픽×센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종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사과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입맛과 반사필름을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추 테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매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난 식재를 많이 합니다.
전나무	민업나무 가시없는 업나무	가시 없는 민업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고, 효능이 같습니다.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모목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농협 703-02-497271(예금주 정준화)

갑을농원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원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결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적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